

사전 투표 버르는 광주·전남... 대선 표심 ‘사전’에 결정난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 전남 51.45%·광주 48.27% 전국 1·2위
지역민들 ‘계엄 트라우마’에 ‘내란 심판론’... 역대급 사전 투표율 전망

‘6·3 대선’ 사전 투표(29-30일)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유권자의 사전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사전 투표율로 이번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51.4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는 48.27%로,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사전 투표율 전국 평균은 36.93%로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14.52%p, 광주는 11.34%p 높았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광주·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높게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41.19%로 전국 1위였고, 38%를 기록한 광주는 전북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이었던 31.28%를 상회한 수치다.

특히 전남은 비교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적은 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다. 지방선거는 당대 당, 후보대 후보 간 선거라기보단, 지역색이 강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럼에도 전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1.04%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해 역시나 전국 1위에 올랐다. 광주는 당시 사전 투표율 17.28%로 대구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광주와 전남은 사전 투표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어, 사실상 호남 민심을 결정 짓는 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남의 최종 투표율은 78.8%로 사전 투표율(34.04%)이 차지하는 비율은 43.1%에 불과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51.45%)이 최종 투표율(81.1%)의 63%에 해당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19대 대선에서 41%였지만, 20대 대선에서는 59%로 유권자 절반 이상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일보와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에 에이스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3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 포인트)를 진행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전남 응답자(189명) 49.2%는 ‘사전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 평균(34.5%)보다 14.7%포인트 앞섰고, 전국 9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계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지역민들의 ‘내란’ 심판론이 크게 대두된 데다, 대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 선거와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사전 투표율을 통해 드러날 호남 결집 효과와 내란 심판론의 강도를 통해 이번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은 늘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광주와 전남의 ‘바람’이 어느때보다 강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열린 유세에서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게 불어 사전 투표율을 통한 대선 결과 예측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신협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보장 강화”

김문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을 시작해야”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나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75만명으로, 5년 사이 27.4%나 증가했다”며 이런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들과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 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보장 강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만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면 (대선 본투표 일)에 딱 때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은 내일도 찍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며 “사전투표 (부정행위) 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거 안 한다. 탄핵도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도록 하겠다”며 큰 절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투표로 내란진압”...김문수 “보수결집해 역전”

대권 주자들 막판 총력전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권 주자들도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통한 내란 진압’을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 승리를 일궈낸다는 목표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주식 시장 구조 개혁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렸다. ‘방탄 독재 저지’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면 남은 기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으며 당의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다졌다.

다만, 사전투표는 29일 ‘적진’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전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일부 담고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

하고 대안 세력을 자임하면서 완주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공원과 강남역, 테헤란로 등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다.

아직 후보 간 담판 등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시간적으로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중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주를 찾아 유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